

“조·태 묵은과제 매듭질터”

인터뷰 태고종 새 총무원장 인곡스님

태고종 제73회 정기총회에서 인곡스님(전 사정원장, 62세)이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월성스님을 은사로 1952년 득도한 이래 총무원 재무부장·부원장·사정원장, 태고종신협 이사장을 두루 거친 신임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지난 11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시기 중단 안락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동방대 인가, 선암사 활성화, 조·태분규해결등에 전심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할 태고종의 현안을 무엇이라 보십니까.
▲ 선암사 용공사 등 조계종과 분규가 진행중인 사찰문제를 해결하는

단등목경신등 조직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승가조직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종단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총무원 사찰단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각급 총무기관단위의 사회활동조직을 건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종단,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의 본모습을

조직 재무구조 개선·종단통합에 만전 동방불교대 승격·선암사 활성화 추진

태고종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기중에도 어떤 형태로든 종결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빠른 시일내 조계종과 출세간의 화합법 테두리안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 무엇보다 태고종의 재무구조가 취약함으로 인해 대사회적 역할과 종단운영에 침체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험을 통한 축

적된 노하우로 건실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열악한 종단의 재무구조는 종단위상을 불안하게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총화체제를 통해 종도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분열양상을 보였던 올해의 태고종상황을 반추해볼 때 종단의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 종단의 구성집이 확실치 못해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거중단적으로 전종도가 단결하여 종

찾아주세요.
— 21세기를 맞아 불교발전을 위한 태고종의 총무방향을 들려주시지요.
▲ 올해내로 동방불교대학의 정규대학 인가와 태고총림 선암사의 활성화를 통해 21세기를 지향하는 종단교육불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대 사회문제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김원우 기자

종단협 ‘불간섭’ 천명 일단 소강국면

‘진흥회 파문’ 어떻게 돼가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일주)가 ‘불교계 분과’를 우려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던 대한불교종단협의회(회장 일공)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두 단체간의 갈등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종단협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일주(조계종 총무원장) 흥과(관음종 총무원장) 지하(승가대학장) 법성(태고종 사회부장)스님과 진각종 락혜통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일주스님은 “한·일 및 한·중 불교교류회의를 종단별로 나누어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종단별로 추진하고있는 위원회 활동을

말고 종단협을 중심으로 통일 것”을 재천명했다.
진흥회도 지난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종단협에서 탈퇴할 뜻이 없으며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활동할 것이다”고 밝혀 의형상 종단협과 진흥회가 화합의 모습을

간담회서 역할분담등 화합 모색... 일부선 미봉책 지적

활성화시켜 소수종단의 참여를 넓힐 것”을 밝혀 조계종의 독주에 반발하고 있는 진흥회를 포용할 뜻을 비쳤다.
참석자들도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진흥회에 관해서는 “협의구상체의 해체여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일체 대응하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진흥회가 주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천법회’를 계기로 촉발된 종단간의 갈등을 완전히 치유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준엽 기자

총무원장 전격교체 배경과 전망

태고종 개혁의 깃발을 내걸었던 해초스님 집행부가 1년만에 침몰했다. 태고종은 지난 11월 26일 제73회 정기총회에서 새총무원장에 인곡스님을 선출하는 등 종단지도부체제를 출범시켰다.

당초 태고종은 지난해 총회에서 총무원장 서봉스님 후임에 해초스님을 선출하고 40대 부장단을 임명하여 종단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개혁은 차치하고 종단위상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임이 팽배해져 총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부원장 각 부장들이 ‘타의에 의한 자진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태고종 실권자들인 소위 7인방의 역학구도와 함께 지방총무원의 의지가 과감히 드러났다. 지난해 서봉스님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이어 ‘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리자’는 정경유시로 일정 기간 서봉스님 총무원장체제로 복귀하여 사표를 내고 이임시키는 수순을 밟는 사건에 이르러까지, 7인방의 미묘한 힘겨루기로 종단의 운영은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다 총회의 연기 등이 겹쳐지면

중도불신 증폭 종단위상 추락 ‘원인’ 보수집행부 출현 변화 예상

서 해초스님집행부의 핵심인 각 부장들이 인준도 안된 상태로 이어져 개혁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총무원장 후보로 나온 인곡스님과 총명스님(봉서사 태고종에 상당한 변화가 18:17의 기권 1명이라는 극한 순간이 연출된 것은 지방총무원의 세력의 급부상을 의미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고종의 분위기가 7인방 구도에서 지방총무원의 영향력 개세로 종단운영이 민만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곡스님의 선출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젊은 세력이 물러나고 보수성을 띤 종단집행부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태고종에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태고종은 어렵게 당선된 새 집행부가 종도들을 원만히 이끌고 가야만 하는 부담과 함께 개혁 보수를 떠나 종단재정등 산적한 문제 해결이 큰 과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립대학 개교, 재무구조화립, 분규사찰문제해결과 종단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종대차의 과제인 재무부실을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종단현안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태고종은 명실상부한 제2 종단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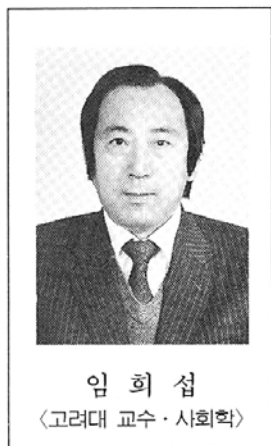
시론

과소비 망국병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근래에 와서 우리 경제는 고질적인 저생산과 고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의 약화라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들어 무역적자가 사상 최초로 200억달러에 육박하게 되고 종합국제수지가 5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가 하면 총외채의 규모도 1,000억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무역적자·외채 날로 누적

이와같은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울며 사치성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나 증가하여 경제전문가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외제 가중구도의 수입액이 1억5천만 달러, 이태리제품 호화 외제 가구의 수입액이 2억1천5백만 달러, 외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2억4천만 달러, 위스키 수입액이 1억3천만 달러, 심지어 바닷가재 수입액도 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임희섭 (고려대 교수·사회학)

물론 우리의 무역역수적 적자나 외채의 급격한 증가가 모두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때문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하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과소비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아가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결과마저 낳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일으키는 이와같은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호화 사치성 외제 품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치성 외제품의 소비층은 이른바 일부 중류층들의 ‘과시적 소비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

은 우리 사회에 적지않은 신흥 부유층을 형성하였는데, 그들중 일부는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채놀이, 그리고 뇌물수수 등과 같은 지하경제에 기생하여 부를 축적한 ‘불로소득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딸려 돈을 벌기 보다는 손쉽게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와 같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물질적 성공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고가의 외제 수입품을 소비하는 등의 과시적인 소비행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그와같은 신흥 중류층의 과시적 소비행태는 우리사회에 과소비문제를 확산시키고 향락산업을 번성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를 물론 농촌지역에까지 번지고 있는 향락풍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기풍까지도 썩먹고 있으며 청소년세대의 도덕성 형성에도 해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제 사치품 수입의 증가와 과소비문제가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그렇기 않아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선진국경제에 더욱

종속되어 해외시장은 말쑥도 없고 국내시장마저도 외국자본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적 성숙을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진입한 우리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 국민들보다 더 흥청거리는 왜곡된 ‘과소비문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망국적 풍조이다.

우리는 어느 외국 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뜨리고 근면과 절제의 가치를 너무 쉽게 핑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물질의 소유나 소비에 의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간됨을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에서 찾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 100

참 스승을 만나게 된 천재일우의 기회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다. 눈을 뜨게 되는 날까지, 다친 다리가 다 낫게 되는 날까지는 -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 참 스승을 만난 때까지는 -
스승은 삶의 안내자이다. 길을 가는 이에게 이정표(里程標)와 같다. 가령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자. 우거진 덩굴 숲, 위험한 벼랑·계곡이 길을 막을 것이고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헤매던 중에 등산로의 표지판을 만나게 된다면 비로소 그는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스승은 길을 잃은 사람, 길을 모르는 사람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초행길을 자세히 알려주는 지도라고 해도 좋다.

어는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라도 스승이던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장자(莊子)는 구불구불 휘어진 고목을 보고서 쪽 뿜어 재목 감으로 베어나간 나무와 비교하며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또, ‘모란 돌이 정(釘)을 맞는다’는 속담에서 ‘모란’ 들은 분명 삶의 교훈이다.
그렇진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찌 스승이 없다 하랴. 문제는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길 잘 안다면, 거기서 삶의 교훈을 얻을 줄 안다면 따로 스승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일체 경계를 스승으로 삼고 있으니 공부 무르익을 대로 익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인생 길에서 장님이나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길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진정한 스승인가. 어떻게 해야 참 스승을 만날 수 있는가. 이왕 스승을 찾을 바에야 바른 스승을 만나야 한다. 자칫 장님이 장님을 안내하는 꼴이 되어서는 그보다 더 한 낭패가 없기 때문이다. 원효선사가 대안대사를 만났듯이,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만났듯이 이왕이면 참 스승을 만나야 한다. 헌신과 믿음을 바칠만한 스승 밖으로 그런 스승을 만난다면 내 안의 스승을 만나는 길도 빠르다. 공부하는 이의 큰 복이기도 하다.

진정한 스승은 이름이나 외양을 ‘나’로 내세우지 않는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삼지 않는다. 학식이나 덕망, 신분이나 명예, 또는 무슨 능력 따위를 상표로 내세워 남을 이끌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다만 실천으로써 남을 가르친다. 고기나 빵을 주는 이가 아니라 낚시질 하는 법, 빵 굽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내 나무의 뿌리에 생수를 부어서 나

를 푸르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인생길에서 격면케 되는 모든 난관마다에서 그것을 풀어헤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사람이다. 댓가를 바라지 않고 감응을 풀어주는 그런 분이다. 고로 스승에게 바치는 믿음과 헌신은 자연스럽다.
길을 잃은 이들이 이정표를 믿고 바른 길을 찾아가듯이 공부길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스승을 믿고 스승에 귀의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 중에 선지식을 만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한다. 내게 길을 알려주고 내 나무의 뿌리에 생수를 부어주는 스승을 만남에 있어서야 그것을 어찌 천재일우라 하지 않겠는가. 스승에 대한 믿음과 헌신은,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수행은 곧 보은이기도 하다. 사람 값을 하는 보은인 것이다.

협찬 : 주인공